

3월 다섯째주

가정 예배

낫아지는 사람들

본문 | 마가복음 10:41-45

간략
개요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계급과 자랑이 무의미해지는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낫아지심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Ice Break

'작아서 좋은 삶. 이끼'라는 지식채널e 영상을 보고난 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짧게 나누어 봅시다.

#1. 예배로의 부름 및 신앙고백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찬양 | 꽃들도

1. 이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리라
2.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3. 합심기도

-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1. 우리의 음란과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옵소서.
 2.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성경봉독 | 마가복음 10:41-45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5. 말 씀 | 설교문은 인도자 매뉴얼 참조

[관찰]

- 예수님의 열 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열 명의 제자들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참조. 마가복음 10:37)
-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 추구하는 질서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 사이에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42-44절)
-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목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45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벼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가까운 미래의 일을 밝히시는 순간에도 두 형제는 권력자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권력이 아닌 섬김, 주인이 아닌 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6. 생각나누기

Q1. 권력 쟁취를 위해 논쟁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42절).
공생애 기간 동안 선생이며 주님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Q2.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22-25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Q3. 우리 청소년부가 진짜 좋은 ‘교회’ 가 되기 위해 ‘강한 자’ 가 ‘약한 자’ 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각과 의견을 모아보세요

#7. 결단 및 적용

- 내 꿈과 내 비전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한주 어떻게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처럼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단해 봅시다.
- 결단하고 적용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8. 주기도문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 교 제

-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포옹,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응원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의 소감을 나눈다.
-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누나(오빠, 형,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누나(오빠, 형, 언니)에게 ‘나의 ○○이 되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한다.(쏙쓰러우면 카톡으로 대신한다)